성경의 기록순서

2000 (2000)욥기

1500 (1446-1406)모세오경

(1300)여호수아

(1100)룻기 (1050)사사기

1000 (1000)욥기, 시편
(930)사무엘 상/하
(950-700)잠언,전도서,아가 (760)아모스,요나 (755-700)호세야
(700)이사야,미가
(656)에스겔 (627-580)애레미아,애가 (610)하박국 (600)다니엘,나홈
(586)오바댜 (560)열왕기 상/하 (520)학개

500 (500-470)스가랴 (450)역대 상/하,에스더 (440)에스라 (430)말라기
(400)느헤미아

B.C

A.D

50 (51)데살로니가 전후서 (56)고린도전서 (56-57)빌립보서
(56)갈라디아서 (57-58)야고보서 (58)고린도후서,로마서
(60)히브리서 (62)야고보서,에베소서,빌립보서,빌레몬서,골로새서
(63)디모데전서 (64)베드로전서 (66)베드로후서,디모데후서,디도서
(67-68)유다서

(70) 마가복음
(80-90)누가복음,사도행전 (85-90)마태복음 (90-91)요한1,2,3서
(90-96)요한계시록 (90-100)요한복음

100

성경의 요약

에레미아
31:3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31:33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구약성경 ———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

복음서 ———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사도행전 ——— 그리스도의 전파

서신 ——— 그리스도의 설명

계시록 ——— 그리스도안에서의 완성

누가복음
22:20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新約 이란 고전 11장 25절 과 고후3:6 절의 (헤 카이네 디아데케 η καινη διαθηκη)란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그 뜻은 두 가지임

1)유언(Testament), 2) 계약(Covenant)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중재자로 하나님과 맺은 옛 계약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성립된 새 계약이란 뜻

정경화 결정 원칙

정경(Canon)에 해당하는 원어는 카논(χανων)이다.

카논은 원래 갈대, 긴 나무가지라는 뜻이다. 정확한 자(尺), 즉 길이를 재는 도구가 없었던 고대에는 이런 것들을 자의 대용품으로 삼았었다. 그리하여 카논은 결국 어떤 것을 재는 기준, 척도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기독교는 성경이 성도의 인식과 행위의 척도가 된다는 측면에서 그 영감성과 계시성이 인정된 성경을 정경 곧 카논이라고 부른다.

정경 결정의 원리가 초대 교부(敎父)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으나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재료에 의해 크게 세 가지였음을 발견

첫째는, 사도서(使徒性), 즉 新約 聖經은 사도들과 또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는 점

물론 마가나 누가 같은 사람들은 사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적 예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
누가도 바울의 의사로서 바울과 그 밖의 (눅 1:1)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눅 1:2)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군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살핀 자료를 통해 역사적 예수와 초대 敎會의 역사에 대하여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聖經 기록자들이 다 한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정경(政經) 제정의 원리는 보편성(普遍性), 즉 당시 敎會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았다는 점

세번째, 정경 제정의 원리는 교리의 일관성

놀라운 것은 1600여년 동안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서 기록되어진 聖經이 서로 모순됨이 없이 일관성 있는 교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

그러나 개혁자들은 위에서 말한 것 외에 聖經의 내적 증거(internal testimony)에 대해서 강조한다.
칼빈은 新約 聖經 전체의 정경성을 말했다. 그는 말하기를, 聖經을 읽게 될 때 신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新約 聖經의 정경성을 보여 주는 최고의 증거라고 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다.

정경화 과정

500 **율법서(모세오경)**
(3C초) 70인 헬라역본 (알렉산드리아)

200 **예언서(이사야~말라기)**

B.C

A.D

100 **성문서(욥기~아가서)**
(90?100?)Jamnia교회회의에서 구약39권이 정경으로 승인

(140) 영지주의 말씨온(Marcion)에 의해 최초 신약 CANON 주장
누가복음 및 바울서신 10개만 성경으로 인정 (구약의 불인정), 144년 파문

(189) 이레니우스(Irenaeus)가 두 번째로 신약 정경 주장
3가지 종류로 성경을 분류

(367) 아다나시우스(Athanasius)가 세 번째로 신약 정경 주장
27권만 정경으로 주장

400 **(397)카르타고 3차 교회회의에서 신약27권이 정경으로 승인**
* 어거스틴 참석
(390~404) 제롬의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역
(1382) 위클리프역 영어성경

1500 **(1453~54) 구텐베르그 인쇄술 : 성경 180질 인쇄** *1질 30억원

(1517) ** 루터의 종교개혁
(1535) 틴데일 영어성경 (1537) 매튜성경
(1611) KJV 흠정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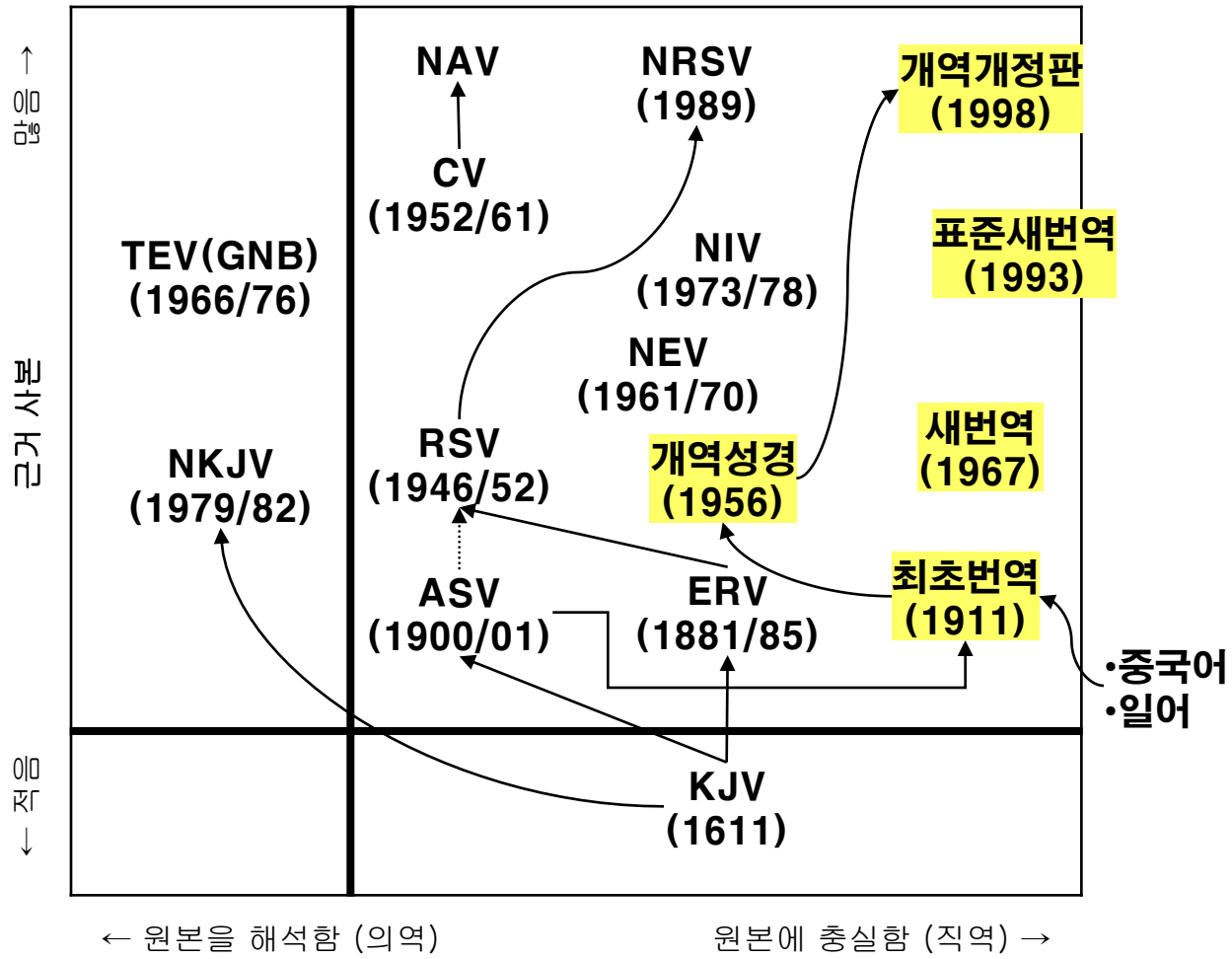
1800 **(1832) 네덜란드 선교사 귀츨라프 목사**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
(1865) 토마스 목사 (한문성경 전해 줌)
(1882) 서상륜,이응찬,백홍준 : 최초 우리말 성경 누가복음 번역
(1883) 미국성서공회 한문 4복음서/사도행전을 이두로 토를 담
(1884) 이수정 : 마가복음 번역 ('85 언더우드,이펜젤러 지참 入韓)
(1887) Jhon Ross 신약 완역 "예수성교전서"

1900 **(1900) 신약전서 (1911) 구약전서 완역**
(1936) 구약 (1938) 신약을 개정
(1956) 개역성경 (1977) 공동번역
(1985) 현대인의 성경 (1993) 표준새번역
(1998) 개역개정판

2000

원본 vs. 번역성경

1. 원본(사본)에서 직접 번역한 것인가? 번역본을 재번역한 것인가?
2. 원본(사본) 직역에 가까운가? 의역에 가까운가?
3. 어떤 사본에 근거한 것인가?
4. 번역체가 현대어(現시대의 언어)인가? 고어인가?
5. 문어체로 번역됐는가? 구어체로 번역됐는가?
6. 번역상 오류가 많은가? 적은가?



구약 성경 사본

성경 각 권의 원본은 모두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어 사라졌고, 다만 사본만 남아 있을 뿐이다. 현재 보존되고 있는 사본들은 원본 또는 다른 사본을 베낀 것들이다. 사본은 기원전 11세기경부터 사용된 파피루스에 가장 많이 기록되었으며, 그 밖에 양피지나 송아지 가죽, 점토, 나무 껍질 등도 재료로 이용되었다.

구약 성경의 사본은 그 동안 기원후 9세기의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었으나 사해사본이 발견됨으로써 그 연대가 기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다.

1. 사해 사본

❑1947년 발견된 BC2c말~AD2c초에 기록된 에세네파 쿰란 공동체 사람들의 기록으로 추정
❑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구약 성경의 단편들과 함께 외경과 당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종파의 문헌들이 발견됨
❑모두 11개의 동굴들에서 발견된 문서들은 고문서학적 분석 및 탄소 연대 측정법을 통해 기원전 2세기 경의 것으로 추정됨

2. 맛소라 사본

❑BC7c 부터 사용된 모음이 붙은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맛소라 사본'이라 부름

히브리어를 잊어가던 (대신 아람어를 사용) 유대인들이 구약을 구전으로 암기하여 전승하던 시기에 나옴 * 아람어 탈굼역

3. 사마리아 오경

❑1616년 이탈리아의 한 여행가가 다마스커스에서 처음 발견
- 150여 개의 두루마리
- 가장 최초의 것은 기원후 9세기경에 기록된 것이고, 대부분은 14-15세기의 것들임

❑ 세겜의 그리심산 기슭에 위치한 사마리아 회당에 보관된 아비샤 두루마리가 최고의 권위를 지님 (1149년 기록이 최초의 것)

신약 성경 사본

전체이건 부분이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어 사본은 대략 5,000여 개에 이르고 그 밖에도 초기 번역본에 대한 사본들이 약 1만개 이상, 교부들의 인용문도 수천개가 발견되었다. 기원후 9세기까지는 모든 사본 그리스어 대문자로만 기록되었고, 소문자는 그 이후에 사용되었다. 대문자 사본으로 공식 목록에 올라 있는 것들은 214개에 달한다.

1. 시내 사본

❑1884년 시내산의 성 캐더린 수도원에서 독일 신학자 티쉔도르프가 발견한 사본으로 4세기경의 것으로 추정 (현재 대영 박물관에 보관)

2. 알렉산드리아 사본

❑1627년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였던 루카리스가 영국왕 찰스 1세에게 증정한 사본으로 5세기 초의 것으로 추정됨 (대영 박물관 보관)

3. 바티칸 사본

❑4세기 초의 사본으로 1457년 바티칸 도서관에 등록되어 계속 보관 중

성경의 객관적 증거

1. 메사 비문

❑1868년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독일인 선교사 FA.Klein이 요르단 Dhiban(고대의 Dibon)에서 발견한 것으로 히브리어로 작성됨

❑열왕기에 나오는 모압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입증

"모압왕은 메사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다.
모압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로부터 억압을 받아왔기에 해방이 그의 목표였다.
그 이스라엘 왕은 오므리와 그의 아들이었다.
이스라엘의 새왕이 들어왔는데 그가 모압을 더 못살게 굴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쳤다.
그는 모압의 메다바를 오므리에게 빼앗긴 지 40년만에 되찾았다.
이하, 승승장구하였다. "

2. 아이퓨어 파피루스

❑이 귀중한 자료는 약 1 세기 전 이집트 사카라 피라밋 근방인 멤피스 지역에서 아나스타시라는 사람에 의해 발견, 1828년 네덜란드 레이덴 박물관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보관중

❑출애굽시의 모세의 재앙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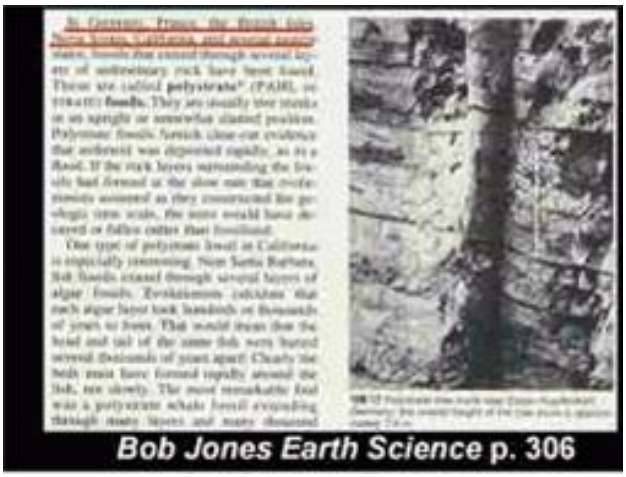
3. 인디언 석판 (대홍수의 증거)

❑미국 미시시피강 유역에서 발견된 인디언 석판

5 컷으로 된 이 그림은

1) 경배를 드리는 사람
2) 홍수,떠내려가는 사람,물에 잠긴 건물
3) 비가 그치고 물위에 떠 있는 방주
(우측상단의 작은 사각형 40여개는 날짜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됨)
4) 방주에서 내리는 짐승, 만세를 부르는 네 사람 (이 남자들은 노아와 세 명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5) 무지개

4. 다지층 화석 (대홍수의 증거)



❑수백만년의 진화연대를 꿰뚫고 있는 나무의 화석은 퇴적층이 매우 짧은 시간(나무가 썩지 않고 서 있는 동안)에 형성되었음을 보여 준다.

5. 텔 마디크 (Tell-Mardika), 북시리아

❑1964년 발국 시작 (마더에 교수, 로마)
- 왕의 궁전
- 에블라 국정 문서의 발견 (16,000여개의 토판)
- 점토판은B.C. 2400-2250년경의 것
- 대부분 수메르어로 기록됨

❑1975년 토판의 그림을 분석

❑서부 셈 제국의 수도

❑에벨(창10 : 21), 아브람, 이스마엘, 이스라엘, 미가, 다윗, 살렘, 소돔, 고모라, 하솔, 라기스, 므깃도, 가사, 욥바 등 이름이 등장

** 논란이 되는 수메르, 길가메쉬

❑창세기의 창조설화와 홍수 설화 등이 수메르의 토판 속에 그대로 기록됨

❑에덴동산에 남자와 여자가 있었고, 동산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금기, 그런데 슈메르에서는 여자가 아닌 남자가 먼저 따먹는 다는 둥 그리고 홍수가 사람들이 다 죽는 데 지아슈드라는 의인이 있어서 배를 만들어 사람들은 구제한다는 둥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기록

성경의 권위

예수님도 인정하신 구약성경 … 바울도 인정

마태복음21:42 절에 보면 예수님은 구약을 가르켜 성경(복수로), (요10:35)에도 성경(단수로)이라고 언급했다. 原文에는 γραφη 라 고 하셨다. 그 뜻은 (기록 a writing)란 말이다. **즉 예수님은 구약의 기록을 하나님이 영감하신 권위있는 말씀으로 보신 것이다.** 바울도 (거룩한 기록 딤후 3:15 , 롬1:2), 또는 (하나님의 말씀 롬3:2)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구약 聖經에 대한 의심은 없다. 이제 문제는 新約도 구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런데 바울은 딤후3:16 절에 모든 (聖經 πασα γραφη),즉 新約을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다.

**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경을 언급하신 적이 없음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를 지칭하면서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라는 말씀(눅 11:51)을 주신 것은 A.D.90년 이전에도 이미 구약 정경의 범위에 대한 확증이 있었다는 결정적 암시가 된다.

베드로의 바울서신 인정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을 곡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면서 (벧후 3: 16)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聖經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벧후 3: 17)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안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다른 聖經 τασ λοιπασγραφασ)란 말이다. 이것은 분명히 구약 聖經을 말하는 것으로서 베드로는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구약과 꼭 같은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본 것이다.

성경의 번역

1,100여 방언 번역 …그러나 아직 천수백 방언 번역이 남음

성경과 성경중 단편이 벌써 일천 백여 방언으로 번역되고 출판되었다. 성경 전체가 번역된 방언수효는 215, 신약은 270, 단편만은 642가 된다. 그러나 성경이나 단편 한권이라도 번역되지 아니한 방언이 적더라도 1천 수백여 방언이 있다. 물론 1천 수백여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큰 부족(部族)이나 국민(國民)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그 전체 인구는 우리 한국 인구의 약 15배가 된다.

성경은 2,261개 언어로 번역됨(2006년 세계선교 통계)

"BIBLE/성경" 의 의미

The Bible(영) / Die Bibel(독) / La Bible(프) : Biblia(라)
그리스어 biblos의 복수형으로 "책" 을 의미

- 고대 필사 재료였던 파피루스, 즉 종이 풀의 줄기에서 옴

- 고대 항구도시 비블로스 : 지중해 연안의 베이루트 북쪽에 있는 항구도시 쥬베르, 헤브라이어로는 게발(언덕)이라는뜻을 지님
  - 고대 오리엔트 세계의 교역의 중심지, 특히 이집트산 파피루스의 집산지

- 비블로스는 기원전 2천년대에 지중해 세계에 발달하기 시작한 알파벳이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그리스 세계에도 전달되면서 책을 의미하게 되어, 뒤에 책 중의 책이라는 뜻에서 <성서>를 가리키게 되었다.

우리 말<성서>는 영어의 The Holy Scriptur,
도이치어의 Die Heilige Schrift,프랑스의 La Sainte Ecriture 등의 번역

- 교부시대의 라틴어 Sacra(Divina) Scriptura등에서 온 말

- 헤브라이어로도 거룩한 책 sepharim kithbe haqqodes라는 말이 있으며, 율법 torah와 예언자들 nbiim과 문서들 ktubim의 세 가지 머리 글자를 딴 ta-na-kh(타나하)라는 구약성서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이 있음

구약 대부분이 가나안어인 히브리어, 신약은 그리스어로 기록

- 에스라 4장8절 -6장18절,
- 에스라 7장12-26절
- 다니엘서 2장4절-7장28절
- 예레미야서 10장 11절
- 창세기 31장 47절 등의 일부분 만이 아람어로 기록됨

장/절의 구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읽혀지는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주간별로 구분해서 일년 또는 삼 년 동안 다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그렇다고 구약성경의 장과 절을 구체적으로 구분했던 것은 아니었다. 처음으로 성경 속에 장(章)을 표시하기 시작한 사람은 11세기 랑 프랑(Lan franc)이었으며, 이어 훗날 켄터베리의 대주교가 된 랑통(Langton)이라는 소르본대학 교수가 랑 프랑이 구분한 것을 받아들여 완성시켰다. 16세기 초에는 유대인들도 이를 받아들여 그들의 구약 성경에 사용하였다.

❑한편 절을 구분한 것은 15세기 말경 도미니꼬 수도회 수사였던 이탈리아 사람 빠니뇨(Sante Pagnino)가 구약 성경의 여백에 절을 표시한 것이 처음으로 전해지며, 1551년 로베르 에티엔느 1세(Robert Estienne)라는 사람이 성경 전체를 절로 구분했다. 에티엔느 역시 절은 성경의 여백에 표시했으며, 지금처럼 성경 내용 속에 직접 절 표시를 한 사람은 1565년 테오도르 드 배재(Theodore de Beze)로 알려져 있다.

(처음으로 장절을 표시한 성경)

** 구약은 929장, 23,142절이며 신약은 260장, 31,098절로
합계 1,189장과 54,240절 입니다

외경 (14권의 역사서)

*** 외경** (**外經 Apocrypha**: 뜻이 명확하지 않거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책)

구약성서는 일찍부터 두 언어로 전승되어 왔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서이고, 다른 하나는 기원전 3세기부터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그리스어역 구약, 일명 칠십인역(LXX)임
초기 기독교는 히브리어 구약성서보다는 그리스어 구약성서를 경전으로 받아들였는데, 거기에는 히브리어 구약성서에는 없는 소위 외경(外經)이라고 하는 책들이 더 편집되어 있어서 가톨릭의 성서가 됨
개신교에서 외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톨릭에서는 '제2경전(第二經典, deuterocanonical)'이라고 부른다.

1977년에 나온 우리나라의 신.구교가 번역한 '공동번역성서'(1977)에 보면, '토비트' '유딧' '에스델(제1경전 에스더기의 추가부분)'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다니엘서(제1경전 다니엘의 추가부분)'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이상 9권임

히브리어로 된 구약에는 없고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에만 나오는 책들에 대한 경전으로서의 권위를 문제삼기는 하였으나, **1546년 트렌트 회의**에서는 그리스어 외경을 히브리어 성경에 들어 있는 39권 책과 동일하게 영감 받은 권위 있는 경전으로 인정하게 된다.

1562년에 영국교회가 발표한 39개조 종교조항 제6조는 "(외경은) 교회가 신도에게 생활의 모범이나 교훈을 가르치려고 할 때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외경을 근거로 하여 교리를 제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1647년 웨스터민스터 신학자 총회에서 결정한 신앙고백 제1장 3절은
"외경은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므로 경전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외경은 성경과는 달리, 교회 안에서 어떠한 권위도 가지지 못하고, 인정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고 하였다.

*** 위경 (僞經, Pseudepigrapha)**은 주로 주전 2세기 이후 희랍시대. 로마시대의 기간에 양산된 엄청난 양의 종료문헌들로서 부활신앙, 천사론(angelology), 마귀론(demonology) 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음 (상세참조 http://www.mizii.com/jesusi/light/bib/old_newf.htm)

탈무드 [Talmud]

Talmud ... “위대한 연구”란 뜻

❑토라(Torah) 혹은 모세의 율법서에 근거하여 편집한 히브리의 시민법과 예배 의식법. 이 기록은 랍비 자신들의 (해석)을 첨가하여 구성되었으며(조상들의 유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마15:1-6 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언급하심

“ 그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

❑<탈무드>는 권수로 모두 20권이며,12,000페이지에다 단어의 수만도 무려 250여 만개 이상이며, 그 무게가 75킬로그램이나 나가는 엄청난 분량의 책

❑기원전 500년부터 시작되어 기원후 500년에 걸쳐 천년 동안이나 구전되어 온 것들을 2,000여명의 학자들이 10여년에 걸쳐 수집 편찬한 것

❑팔레스타인에서 나온 것(4세기 말경에 편찬)과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것(6세기경까지의 편찬)의 두 종류가 있는데, 전자는 ‘팔레스타인 탈무드’ 혹은 ‘예루살렘 탈무드‘라 부르며, 후자는 ‘바빌로니아 탈무드’라고 부른다.

❑유명한 랍비로는 예수님 당시의 힐렐, AD 70년경의 요한나 벤 자카이, AD130년경의 아키바 가 있음